

볼 수 있고, 없고 차이는 없다



지난 9일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독서토론회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소설 '징소리'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해와 꿈이 공존할 뿐

문화공감 2015 <4> '젊은 느티나무' 독서토론회

시각장애인·일반인 어울려 벽 허물기

“장애우들 소설 쓰게 하는게 최종 목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남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린 '젊은 느티나무'의 독서토론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열띤 토론이 한창이었다.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단편소설을 읽고 생각을 주고 받는 이 모임

은 소설가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날 문순태의 소설 '징소리'를 놓고 이들이 벌이는 토론 속에는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전혀 없었다. 소설의 감동만 있었다.

먼저, 말문을 연 최행남(여·63·시각장애 1급)씨는 “이 소설은 고향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표현했고, 징소리를 통해 수물

민의 불안한 마음, 순수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담아냈다”면서 “소설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수물민의 한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이문영(여·43·시각장애 5급)씨는 “(주인공)침묵이의 징소리를 마을 사람마다 다른 느낌으로 듣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다”면서 “소설 속 등장인물을 통해 고난 없는 사람이 없구나,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도 아픔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 독서토론회는 소설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마음속의 벽을 허물어가는 게 특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등의 프로그램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기는 했지만 일반인과 함께 독서토론회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백은희(여·45)씨는 “소설을 읽은 뒤 우연히 소설 속 배경인 장성마을을 지나갔는데 수물민의 아픔이 느껴졌다”면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곁들인 소설 속 문체가 돋보이는데 사투리를 촘촘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다시는 이 같은 작품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아쉽다”고 답했다.

'젊은 느티나무'는 지난해 12월부터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독서토론회를 열고 있다. 주로 단편소설 중심으로 책을 읽고 있으며 그동안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김승옥의 '무진기행',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등의 책을 읽었다.

광주지역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회와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하하문화센터'(이사장 이계양)가 주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현재 8명

의 시각장애인과 7명의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소설을 읽고 있으며,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거나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찾아가는 문학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이 모임의 가장 큰 수확이다.

노동주(33·시각장애 1급)씨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 사람과 소설을 함께 읽고 토론을 하니 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어 좋다”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소설 속 비극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며 '장애가 없는 사람도 비슷한 고통을 안고 사는구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영화감독으로 더 알려진 노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주최한 '2009 인권영상공모전'에서 '한나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노씨에게 이 모임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다.

'젊은 느티나무'는 단순히 소설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글을 쓰는 작업도 결실될 계획이다.

이계양 이사장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소설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야간비행' 이승희일 감독과 대화

광주극장 내일 오후 4시



영화 '야간비행'의 이승희일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14일 오후 4시 광주극장.

서로에게 상처를 내보이며 삶을 헤쳐 나가는 두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야간비행'은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과 제38회 홍콩국제영화제 등 각종 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 받은 화제작이다.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한 성적 1등급 우등생 용주와 학교 내 폭력사범의 우두머리가 된 일진장 기용은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다.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엇갈린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집도, 학교도, 친구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더없이 외로운 용주는 어릴 적 친구였던 기용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민다.

모델 출신인 곡시양, 이재준이 첫 연기에 도전한 작품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이남 친구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13일~3월13일 로터스갤러리

'제 친구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선후배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13일부터 3월13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이이남의 컬렉션과 우정 1'전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컬렉션 하기 시작했다. 후배인 설치 조각가 박형규씨의 작품을 소장하면서 부터다. 당시 이씨는 박씨의 전시회에서 부속품과 액세서리 등을 활용해 만든 조각 작품을 매료돼 작품을 구입했다. '이이남 컬렉션 1호 작품'인 셈이다.

이후 그는 선후배 작가들의 작업실이나 전시회 등에 다니면서 작품을 꾸준히 구입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작가 45명의 작품 50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작품도 있다. '구름작가' 강은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후배인 이씨가 자신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가 작가들에게 직접 구입한 작품도 있지만 갤러리를 통해 소장한 작품도 많기 때문이다.

이씨는 “광주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창작하면서 살아가는 작가들의 작품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지열하게 창작하는 그들의 사람 냄새 나는 모습에 반해 저 스스로 자



차규선 작 '매화'

극을 받는 게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이씨의 작품 '초충도' 1점을 비롯해 강은, 윤남보, 김상연, 정은하, 손봉재, 박일구, 차규선, 이정록씨 등 광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8점이 함께 소개된다. 이씨는 오는 11월에도 '이이남 컬렉션과 우정 2'전을 연다.

한편 담당 출신인 이씨는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올해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 받아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383-0070. /김경민기자 kki@

신순주 광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선정

市 “세대교체 통한 변화 요구”

“활동 없던 사람” 일부 우려도

국극단 예술감독 ‘적격자 없음’

광주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신순주(46·사진)씨가 선정됐다. 함께 공모를 진행했던 국극단 예술감독은 전형위원 만장일치로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전형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0~11일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5명이 참여하는 전형위원회를 열었다.

한양대 무용학과와 전남대 대학원 체육학과를 졸업한 신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유니버설발레단 단원 및 객원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유니버설발레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했다. 또 S클래식 발레학원장을 역임했으며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교수법을 수료했다.

광주시는 “전형위원회가 능력과 경험, 참신성, 무용 분야 경력을 평가했다”며 “세대 교체체를 통한 참신한 예술감독을 선정, 시립무용단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과 관련, 문화계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무용계 활동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예술감독으로 임명됐으며 작품 제작을 비롯, 문제가 산적한 무용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문예회관이 배포한 프로필 자료에 의하면 신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레학원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뚜렷한 경력이 없다.

한편 국극단의 경우 초빙과 재공모 여부를 이르면 시일 내에 결정,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작테마농원-김관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별) HOTER : 일반호텔(4~6인실)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3일째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몽골리안 마상소(현지직별) 몽골리안 마상소(현지직별) 포항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포항사항 : 몽선(현지직별), 기사, 가이드비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박요금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토종돼지 풀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상기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주중제외됩니다.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모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항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항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해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시 : 당번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해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